

전주씨네투어×마중 파트너 공개

전주국제영화제, 저스트엔터테인먼트와 프로그램 진행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저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올해 ‘전주씨네투어X마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씨네투어X마중’은 독립·대안영화와 관객을 이어주는 전주국제영화제의 특별 기획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씨네투어X마중’ 프로그램을 통해 해마다 독립영화를 비롯한 한국 영화계에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배우와 미래가 주목되는 신인배우의 소속사를 선정, 해당 소속사의 배우들과 관객이

전주시에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올해 함께 할 파트너는 관록이 빛나는 실력과 기성 배우들과 재기발랄한 신예 배우들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저스트엔터테인먼트’다.

저스트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중 장르와 매체를 넘나들며 뛰어난 연기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갈해연, 김신록, 김호정, 박지환, 서현우, 신동미 배우와 함께 인상 깊은 연기를 통하여 차세대 배우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강유식, 서지혜, 성지영, 이찬형, 차우민, 차정

우 배우 등 총 12명의 소속 배우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2명의 배우는 배우가 직접 선정한 영화를 상영하고 작품에 대한 배우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마중초이스’, 관객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마중토크’ 등의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저스트엔터테인먼트 이창오 대표는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저스트엔터테인먼트의 배우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준비한 전주씨네투어X마중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도-20개 기관, 지역관광 활성화 ‘머리맞대’

2025년 도·시군·관광재단 관광 정책협의회 · 관광포럼 개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관광객 유치 확대 · 지역발전 견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와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췄다.

도는 지난 7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도와 시군, 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도·시군·문화관광재단 정책협의회 및 관광포럼’을 열고, 전북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각 기관별 올해 주요 관광정책과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2025년 한국관광공사의 ‘도시브랜드 강화’, ‘대내외 협업 추진’, ‘고객경험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소개하며, 관광객 유치 성공·실패 사례 분석과 공모사업 안내 등을 통해 전북관광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문화관광 홈페이지 시군 연계 운영 △특별한 관광지 영상홍보 마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와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췄다.

케팅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시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군에서도 전주시의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운영, 군산시의 ‘K·관광섬 육성사업’, 익산시의 ‘하림+투어 팩토리 시티투어’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와 유관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진 2부 관광포럼에서는 전주대학교 최영기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운 연구위원과 지속발전포럼 홍창식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전북관광의 현황 진단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전주대박물관, 박물관 인력 지원사업 3개 선정 쾌거

전문인력 지원사업 10년 연속 · 예비 학예인력 사업 6년 연속 선정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3개의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박물관의 질적 수준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5년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학예분야 및 교육분야 지원사업(2개 사업)과, 예비 학예인력 양성 체

제 구축을 위한 2025년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2016년 사업 시작부터 2025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예비 학예인력 사업 또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선정됐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박물관 실적 및 평가,

지원인력 근무환경, 박물관의 등록요건 유지, 업무표준안에 맞는 인력활용 등의 평가를 통해 전문인력 우수기관과 예비 학예인력 우수기관 및 우수인력으로 선정됐다.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문화적 활력과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다도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차 역사 · 백제시대 차 문화 · 예법 익힐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선사

익산 백제문화체험관이 백제시대의 차(茶)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도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백제문화체험관은 지난해 3월 개관했으며, 백제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알고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다. 체험관은 전통 의복 체험, 인생네컷 촬영, 미디어 아트 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도 체험 프로그램’은 차의 역사와 백제시대 차 문화를 배우고, 차에 대한 예법을 익힐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체험은 전문 해설과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이 차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37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 성황리 개최

남원시는 제37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지난 8일 오전 10시 산내면 뱀사골(반선 주차장) 일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산내면 발전협의회(회장 양재웅) 주관으로 열린 고로쇠 약수축제는 산내면 농약단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약수제 길놀이 행사와 약수제, 기념식을 시작으로 와운마을 천년송 걷기대회, 즉석참여 노래부르기, 초청 가수공연, 고로쇠를 활용한 이벤트 및 체험(고로쇠

먹고 고향지르기, 고로쇠 시음 체험 등),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지역 먹거리장터, 농산물판매장과 고로쇠 약수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도 운영됐다.

특히 올해 고로쇠 축제 산내면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이 함께 자체적으로 만든 제품과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부스와 도토리를 활용한 공예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지리산 뱀사골과 달궁, 반야봉 등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약수는 지리적 특성상 해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친환경 고산 지역에서 생산되어 최상품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타 지역 고로쇠보다 신경통, 위장병, 관절염, 변비에 이롭고 인체에 도움이 되는 많은 무기질 및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내면에서는 천년고찰 실상사 등 인근의 문화재와 지리산둘레길도 둘러보고 맛의 고장 남원의 흑돼지 삼겹살, 산채비빔밥, 도토리묵 등을 맛볼 수 있다. /남원=김기주 기자



부안군은 지난 7일 군수실에서 지천 우암 김법준 작가의 매창시 서각 작품 44점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김법준 작가, 매창시 서각 작품 기증

부안군, 기증 증서 · 감사패 전달… 부안매창테마관서 전시

부안군은 지난 7일 군수실에서 지천 우암 김법준 작가의 매창시 서각 작품 44점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서는 귀중한 작품을 군에 기증한 김법준 작가에게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함께 전달했다.

기증된 매창시 서각 작품은 부안매창테마관에서 오는 10일부터 6월 18까지 다시 피어나는 매창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전시해 군민들에게 이매창의 시를 새로운 예술작품 형태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각(書畵)이란 전통적으로 돌이나 나무 등의 소재를 조각칼이나 정·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해 깎아내면서 문자를 조각하는 활동 또는 작품을 의미한다.

과고 새김의 예술인 서각은 패이고 깎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작품에 투영된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다.

김법준 작가는 50여년 전 서각에 발을 디딘 후 대한민국서예문인회대전 · 대한민국

명인미술대전 · 대한민국안중근서예대전 · 정음사전국서화대전 · 한국서협전북서예대전 · 새만금서예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지천서화연구실 및 정음시생활문화센터에서 서각 강사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법준 작가는 “서정 시인 이매창의 아름다운 글귀에 매료돼 서각 작품 속에 매창의 삶과 철학을 새겨넣을 수 있어 최고의 값진 작품 활동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서각이라는 예술과 매창의 시를 다시 한번 들여보면서 뜻깊은 감성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출신 조선 중기 여류 시인 이매창의 문화정신을 군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김법준 작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증해 주신 소중한 작품을 전시 등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 고유의 문화적 가치 활용 콘텐츠 활용 방안 모색

전주 문화에너지 확산 위한 세미나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에서 문화에너지 확산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은 전주시(시장 우범기)와 지난 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주 문화에너지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주대학교와 한국동북아학회, 전주시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라일보가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형수 한국동북아학회장과 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문화왕도 전주의 에너지’와 ‘전주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문화올림픽 개최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또한 문화에너지를 활용해 전주시의 역사적 문화 가치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두 개의 세션도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준순 신동아학원 이사장이 ‘전주의 재발견-전주의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전주만의 고유한 문화를 재조명하는 발제에 나섰다.

이어 변주승 전주대 교수와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 이동희 前 전주역사박물관장이 참여해 우수한 전주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정훈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이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의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전주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그간



의 성과와 미래 10대 전주 문화 비전, 전주시의 문화정책이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김상규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장세길 전북연구원 지속사회정책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의 문화적 가치가 콘텐츠로 활용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성운 국회의원은 “전주는 한국의 문화, 맛, 종교, 소리, 영화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전주의 문화콘텐츠 그 자체가 문화에너지”라며 “전주만의 문화에너지가 전주의 전부를 위기에서 살려내는 삶의 에너지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치와 행정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조선왕조의 분항이자 후백제의 왕도로서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라며 “토론 결과를 토대로 전주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빛남과 동시에 문화산업 전반에 적극 반영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차 시나브로 치유길 오프라인 챌린지 진안서 열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8일 진안 운일암반일암 숲길에서 2차 ‘시나브로 치유길 오프라인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안군·원주군과 충남 4개 시군이 협력해 기존 걷기 여행길을 지역 특화 테마로 변형한 치유 걷기 여행 상품이다.

이번 챌린지는 운일암반일암 주차장에서 출발해 무지개다리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 코스다. 진안 고원에서 즐기는 ‘뽕잎차 차담회’, 자연

광을 배경으로 한 ‘인생샷 촬영’, 참가자들을 위한 ‘경품 추첨 이벤트’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관광자원을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전북 자연 관광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